

SEMINAR 5

PROPHECIES CONCERNING THE JEWS AND ISRAEL (1)

유대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1)

세미나 5: 유대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1)

1. 유대인 -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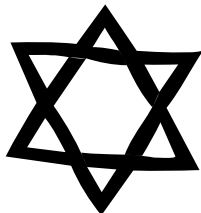
-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을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써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신명기 7:6-8)



-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역사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불리운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1,9-12)

(이사야 44:8 참조)

SEMINAR 5: PROPHECIES CONCERNING THE JEWS AND ISRA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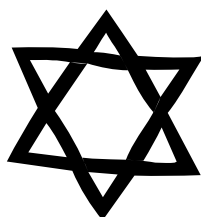
1. THE JEWS - GOD'S SPECIAL PEOPLE:

- God loves the Jewish people as a chosen race because they are the descendants of Abraham, Isaac and Jacob.

"For you are a holy people to the LORD your God; the LORD your God has chosen you to be a people for Himself, a special treasure above all peoples on the face of the earth. The LORD did not set His love on you or choose you because you were more in number than any other people but because the LORD loves you and because He would keep the oath which He swore to your fathers." (Deut. 7:6-8)



- The Jews are called God's WITNESSES because their history testifies to His greatness and existence.



"He who formed you O Israel You are My witnesses says the LORD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ME, You are My witnesses says the LORD. that I am God ." (Isaiah 43:1,9-12)

(See also Isaiah 44:8)

2. 초기 이스라엘 국가에 관한 예언:

-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1-2)

"내가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창세기 22:17)

창세기 26:4, 28:13-14 참조

이루어짐 -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에 닦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후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 노예 생활과 애굽에서 탈출을 아브라함에게 예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13-14)

2. PROPHECIES CONCERNING THE EARLY YEARS OF THE NATION OF ISRAEL:

- Abraham, Isaac and Jacob were told that out of them would come a GREAT NATION:

"The LORD said to Abram"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Genesis 12:1-2)

"I will multiply your descendants as the stars of the heaven and as the sand on the sea shore." (Genesis 22:17)

See also Genesis 26:4, 28:13-14

FULFILLED - After Jacob and his sons moved to Egypt to escape the famine in the land of Israel they increased in number dramatically.

"... The children of Israel increased abundantly, multiplied and grew exceedingly mighty; and the land was filled with them." (Exodus 1:7)

- God foretold Israel's future slavery and exodus from Egypt to Abraham:

"Then he said to Abram: Know certainly that your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land that is not theirs, and will serve them, and they will afflict them 400 years. And also the nation whom they serve I will judge; afterwards they shall come out with great possessions." (Genesis 15:13-14)



이루어짐 -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출애굽기 1:13-14).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23-25). 이스라엘 자손은 많은 부와 소유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다 (출애굽기 12:35-38). 애굽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포함한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 받았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멸망 당하기도 하였다 (출애굽기 7-10, 12, 14).

3.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 하였을 경우에 그들의 미래에 관한 예언:

레위기 26장

애굽을 떠난 후,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써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라고 명하셨다. 만약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그들과 나라 전체에 특정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다 (레위기 26:14-46를 보라). 다음은 그 징벌 중 몇 가지를 나열한 것이다:

-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 17, 25, 37절
-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 질 것이다 32, 33절
- 그들은 열국으로 흩어져 박해를 받을 것이다 33절



FULFILLED - Israel became slaves to the Egyptians (Exodus 1:13-14). God remembers the promise to Abraham to bring them out of slavery (Exodus 2:23-25). The children of Israel leave Egypt with great possessions and wealth (Exodus 12:35-38). The Egyptians were judged by the 10 plagues which included the killing of all the firstborn sons by God and ultimately the destruction of Pharaoh's army in the Red Sea (Exodus 7-10, 12, 14)

3. PROPHECIES ABOUT THE FUTURE OF ISRAEL IF THEY WERE DISOBEDIENT TO GOD:

LEVITICUS 26

After leaving Egypt, Israel was formally recognised as a nation. God caused Moses to give His Laws to the people as they journeyed to the promised land. Warnings were given to Israel that if they were disobedient then specific things would happen to them and their nation as a whole (see Leviticus 26:14-46). Some of these punishments include:

- *Their enemies would rule over them v17, 25, 37*
- *The land of Israel would be become desolate v32, 33*
- *They would be scattered among many nations and be persecuted v33*

신명기 28장

이스라엘이 처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불순종 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할 것이고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40년 전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을 전하였다.

이것은 두번째 율법으로써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있다. 불순종에 대한 징벌은 다시한번 반복되었고 신명기 28:15-68에 기록되어있다. 특정한 징벌은 다음을 포함한다:

- 그들은 열국으로 흩어질 것이다 25, 63-66절
- 그들은 원수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25, 36, 48-50절

징벌에도 불구하고 생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큰 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레위기 26:44-45)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흠뻑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찌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아 30:11)

DEUTERONOMY 28

When Israel initially approached the Promised Land they lacked faith and were disobedient to God. As a result, God said that they would wander in the wilderness for a total of 40 years during which time, all those over the age of 20 would die.

The nation of Israel then prepar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the second time. As most of the people had not heard the law given by Moses 40 years earlier, it was repeated by Moses again.

This is recorded in the book of Deuteronomy which is regarded as the second law. The punishments for disobedience were repeated and are recorded in Deuteronomy 28:15-68. Specific punishments again include;

- *They would be scattered among the nations v25, 63-66*
- *Their enemies would rule over them v25, 36, 48-50*

SURVIVAL DESPITE PUNISHMENT

Despite these great punishments God promised that He would not utterly destroy them but cause them to survive;

"... when they are in the land of their enemies, I will not cast them away, nor shall I abhor them, to utterly destroy them for I am the LORD their God. But for their sake I will remember the covenant of their ancestors" (Leviticus 26:44-45)

"For I am with you to save you; though I make a full end of all nations where I have scattered you, Yet I will not make a complete end of you" (Jeremiah 30:11)

4.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이행:

앗수르

이스라엘 왕국의 악행과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앗수르 제국에 포로로 넘기셨다. 앗수르 국가는 "진노의 막대기"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사야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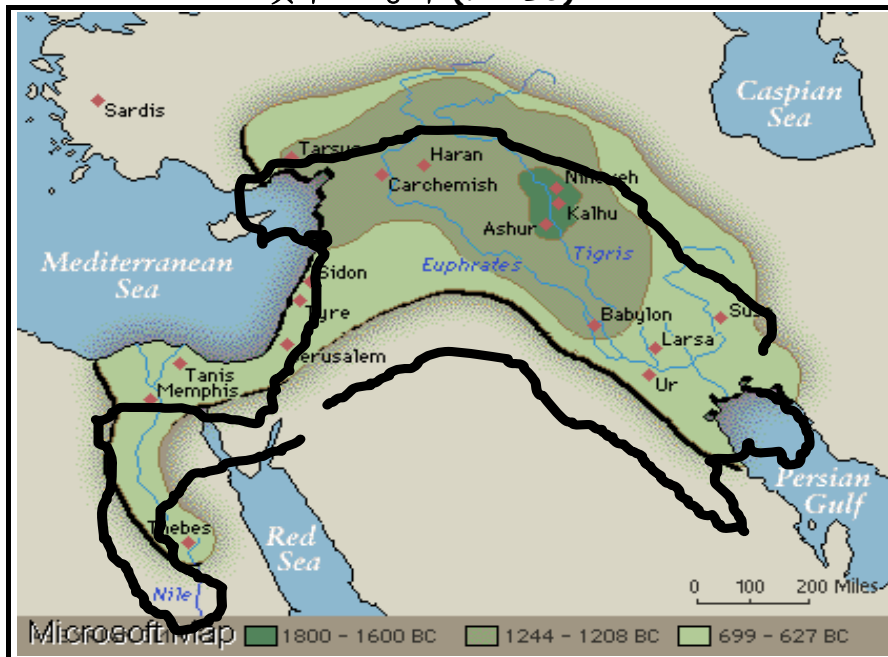
호세아 선지자는 앗수르의 침략이 있기 바로 전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저희가 여호와와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호세아 9:1-3)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9:17)

이루어짐 - 왕하 17:1-6 에는 이스라엘이 앗수르 군사에 의해 침략을 받고 이어 BC 722년에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앗수르 왕국 (722BC)



4. THE FULFILMENT OF GOD'S PUNISHMENTS FOR ISRAEL'S DISOBEDIENCE:

THE ASSYR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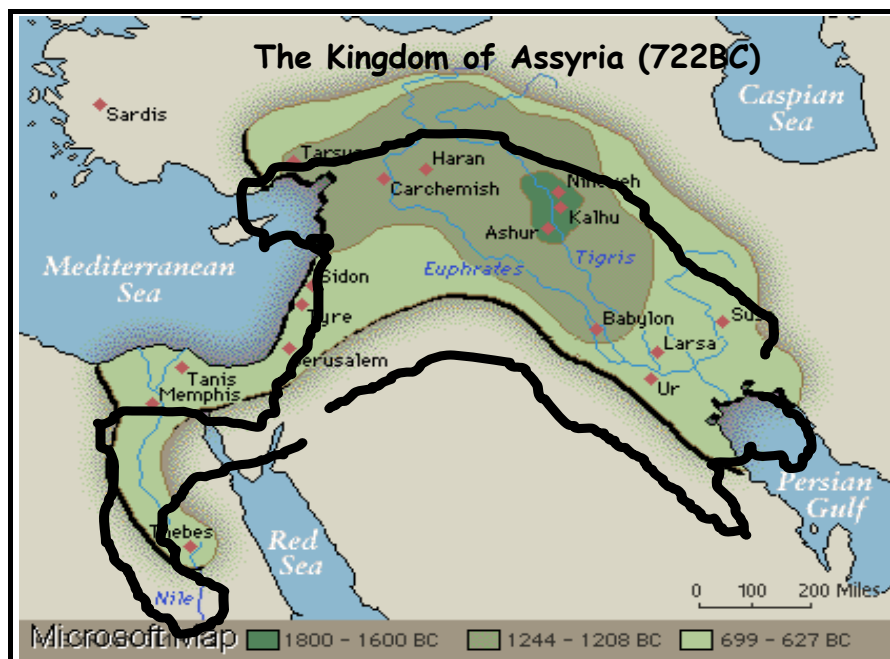
Due to the kingdom of Israel's wickedness and disobedience God caused the Assyrian Empire to take them into captivity. The nation of Assyria is described as the "*rod of My anger*" (Isaiah 10:5).

The prophet Hosea prophesied just prior to the Assyrian invasion:

"Do not rejoice, O Israel they shall not dwell in the LORD's land, but Ephraim shall return to Egypt, and shall eat unclean things in Assyria." (Hosea 9:1-3)

"My God will cast them away, because they did not obey Him; they shall be wanderers among the nations." (Hosea 9:17)

FULFILLED - 2 Kings 17:1-6 records the historical account of the invasion of Israel by the Assyrian army and their subsequent captivity to Assyria in BC 722.



바벨론

유다왕국의 악행과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넘기셨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유다가 포로로 잡히기 바로 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예레미아 20:4-5)

예레미아 25:8-9 와 34:1-3을 보라.

이루어짐 - 역대하 36:15-21 에는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이어 BC 586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 왕국 (606-536BC)



THE BABYLONIANS

Due to the Kingdom of Judah's wickedness and disobedience, God caused them to go into captivity into the Babylonian Empire.

The prophet Jeremiah prophesied prior to Judah going into captivity:

"I will give all Judah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Babylon, and he shall take them captive into Babylon and slay them with the sword. Moreover I will deliver all the wealth of this city, all its produce, and all its precious things; all the treasures of the Kings of Judah I will give into the hand of their enemies, who will plunder them, seize them, and carry them to Babylon."
(Jeremiah 20:4-5)

See also Jeremiah 25:8-9 and 34:1-3

FULFILLED - 2 Chronicles 36:15-21 records the historical account of the invasion of Judah and it's capital Jerusalem by the Babylonian army and their subsequent captivity to Babylon in BC 586.



주의: 앓수르와 바벨론 왕국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더 이상 국가로써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유대인들은 현재까지 살아있고, 자신들의 땅에 거주하며 한 국가로써 인정받고 있다. 이는 다음 예언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흘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찌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아 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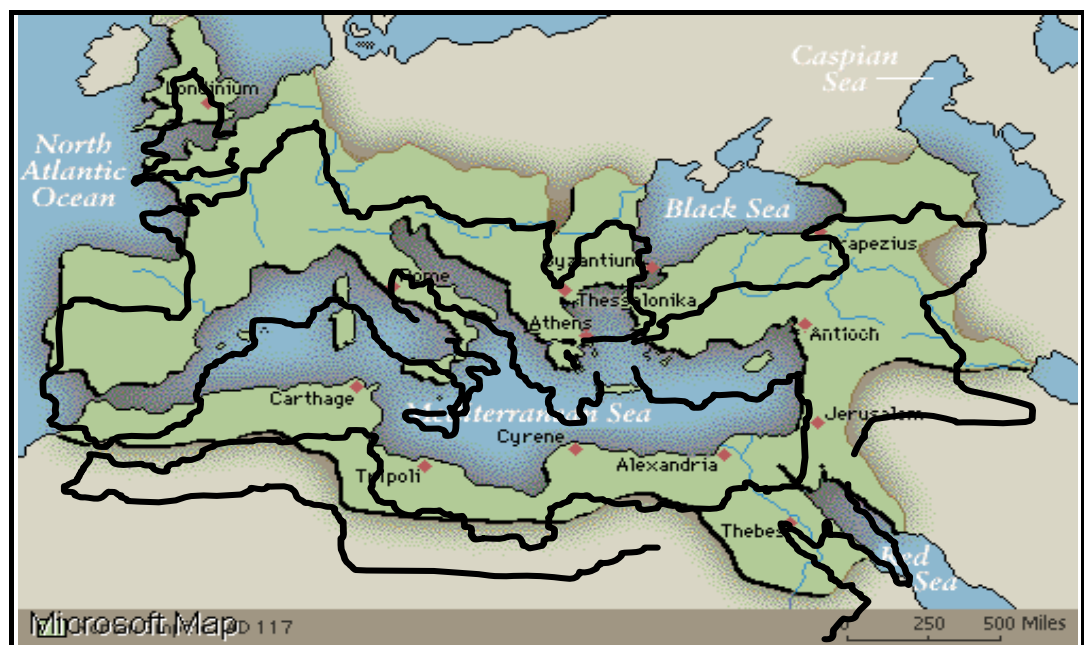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 살펴보고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아보자.

로마

메대바사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와 같은 세계 왕국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였다.

그리스 제국의 멸망은 로마 제국의 세계 통치로 이어진다. (다니엘 2장에 나온 다니엘의 신상에 대한 성취를 생각해보자- 세미나 3)

강력한 로마 제국



NOTE: Where is the Assyrian and Babylonian Empires today? They are no longer in existence, they are finished as nations. On the other hand the Jewish people have survived, dwell in their own land and are recognised as a nation today. This is a specific fulfi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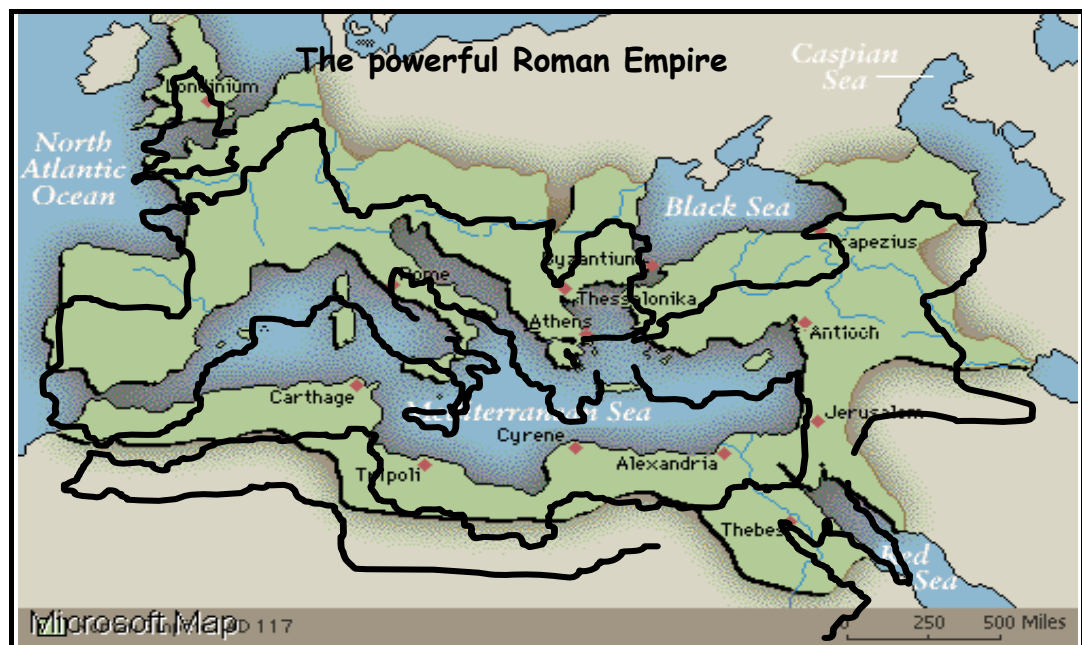
“ For I am with you to save you; though I make a full end of all nations where I have scattered you, Yet I will not make a complete end of you.” (Jeremiah 30:11)

We now look at the Roman empire and how it afflicted Israel.

THE ROMANS

World empires such as the Medo-Persian Empire and Greek Empire (Alexander the Great) controlled Jerusalem and the land of Israel.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Greek Empire the Romans controlled the world. (Note the fulfilment of Daniel's Image in Daniel 2 - see seminar 3)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때에 세계를 다스리던 세력권이 었다. 예루살렘(특히 성전)의 멸망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Luke 21:5,6)

누가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징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 다음은 그의 대답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으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20-24)

성취 - 1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AD 70년**에 놀랍도록 상세히 이루어졌다. 로마군의 악화로 인해 **AD 66년경**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통제권을 가졌다. 로마 지도자 케스티우스 갈루스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후퇴하여 유대인들에게 패배하였다.

이 사건으로 하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멸망에서 도망칠 수 있게 되었다.

The Romans were the World power at the time of Jesus Christ and the apostles. It was Jesus Christ himself that made an astonishing prophecy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especially the temple):

" Then as some spoke of the Temple, how it was adorned with beautiful stones and donations, He said Aas for these things the days will come in which not one stone shall be left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 (Luke 21:5,6)

In v7 of Luke 21, Jesus was asked when would this take place and what signs there would be before it happened. The following was His reply:

"But when you see Jerusalem surrounded by armies then know that its desolation is near. Then let thos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let those who are in the midst depart for these be the days of vengeance, that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may be fulfilled and they wi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be led away captive into all nations. And Jerusalem will be trampled by Gentiles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Luke 21:20-24)

FULFILLED PART 1



This prophecy of Jesus Christ was fulfilled in dramatic detail in AD70. Due to Roman aggravation the Jews revolted and took control of Jerusalem in approximately AD 66. The Roman leader Cestius Gallus marched his troops to Jerusalem and surrounded it. For no apparent reason he then turned back and was then defeated by the Jews.

These events thus allowed people to flee the coming destruction spoken of by Jesus.

(1부 성취 계속)

가이사가 갈루스의 패배를 듣고 그의 최고 사령관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안을 대리로 내세워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다. 티투스 장관은 60,000 군대를 이끌고 그 주변 지역을 통제한 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제 사람들은 도망 갈 기회를 잃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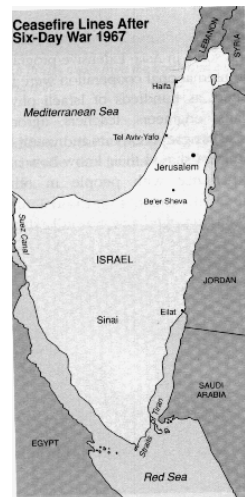
로마군의 맹렬한 도시 함락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은 마침내 부숴졌다. 파괴된 도시는 마치 전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티투스가 그 성전을 보전하고 싶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그의 군사들이 그의 명에 불복하고 성을 그 기반까지 태웠다고 말한다.

성취 - 2부

더욱이, AD 70년 이후로 예루살렘 도시는 많은 이방(유대인이 아닌)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였다:

이슬람 638
십자군 1099
터키 1516
영국 1917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혹은 끝날 때 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24)



유대인들은 1967년 6일 전쟁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였다. 위의 사진은 1967년 6월 10일 서쪽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이방인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다.

(Fulfilled - part 1 (cont.))

When Ceasar learned of Gallus's defeat he delegated Titus Flavius Vespasian, his best General, to crush the revolt. General Titus took 60,000 troops and after taking control of surrounding areas he then surrounded Jerusalem in AD 70. The opportunity for people to flee was now l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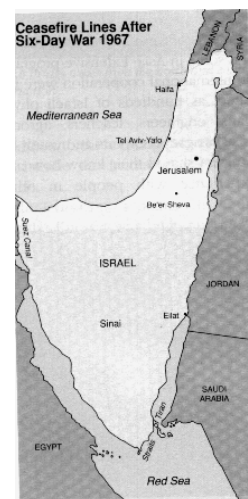
The walls of Jerusalem were finally broken down with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city being particularly severe. The demolition of the city was such that it looked like it had never been inhabited. Despite Titus' desire to preserve the temple, historians reveal how his troops directly disobeyed his orders and burnt it to the ground.

FULFILLED - PART 2

Further, since AD 70, the city of Jerusalem has been ruled/dominated by various Gentile (non-Jewish) powers:

Muslims 638
 Crusaders 1099
 Turks 1516
 British 1917

Jesus said that *"Jerusalem would be trampled by the Gentiles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or finished. (Luke 21:24)



The Jews recaptured the city of Jerusalem in the Six Day War of 1967. The picture opposite shows Israeli soldiers at the Western Wall of Jerusalem on June 10, 1967.

WE ARE THEREFORE LIVING AT THE END OF THE TIME OF THE GENTILES JUST PRIOR TO THE KINGDOM OF GOD AND THE RETURN OF JESUS TO THE EARTH.